

아시아의 호혜성과 사회경제 대안

- 역사적 배경을 중심으로

크리스 도브잔스키, 김이경

<초록>

칼 폴라니는 끊임없는 경제구조 변화의 질서에 대해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그리고 교환(Exchange)라는 세가지 형태의 사회경제적 형태를 제안했다. 그의 가설에 따르면 위 세 가지 형태는 발전 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이며, 개별 동향의 총체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다. 폴라니 이론에 따르면 자기조정 시장은 매번 실패할 운명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경제가 상호주의와 호혜를 망가뜨리고 매번 그들의 시장경제를 반복하기 때문이다. 채무 면제나 상호부조 등을 통한 재분배와 같은 비시장 교류가 그들의 시장 생존 전략에 중대한 역할을 한다(K. Polanyi Levitt, 2013, p.103).

I. 역사적 배경

- 대공황시기 일본의 경험과 1920년대 동아시아 협동조합을 통해 본 아시아의 호혜성

동아시아 호혜성은 1920-1935년 시기를 살펴봄으로써 역사적 검토가 가능하다. 자국 문화에 내재된 호혜의 형태는 민간 단위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은 가장(家)을 중심으로 마을단위에서 講라는 상호부조 조직이 지속되었으며, 중국은 종족단위에서 畵라는 호혜 조직을 형성했다. 한국은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에서 契를 형성한 오랜 역사가 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호혜성'은 서구의 개념과 차이가 있다. 이는 (농촌) 문화를 바탕으로 둔 관계, 조직 헌신에 보다 큰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D. Ciarlante, H. Schutte, 1998, pp. 37-42)

또한 1920년대부터 동아시아에 민간 협동조합이 증가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900년 산업조합법으로 위로부터의 협동조합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이를 성공적으로 이끈 것은 가가와 도요히코 등 민간이 이끈 소비조합이다. 한국은 일제의 식민지배를 받는 상황에서도 일본 유학생 그룹, 기독교, 천도교 등이 자립경제의 수단으로 소비조합, 신용조합 시도했다. 하지만 1932년 이후 일본의 탄압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한국의 상호부조와 협동조합 운동은 멈추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1920년대 동아시아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 '호혜의 역사'와 그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다카하시(Takahashi)가 고정환율제와 결별하고 금본위제로 전환한 1930년대 일본 상황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한 교환경제에서의 사회적 공익을 검토할 것이다. 이 시기는 아시아가 군국주의의 영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덴마크의 이상촌 운동과 연대경제와 같은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시대이기도 하다.

II. 1980-1990년대 아시아 위기로부터 시작된 호혜성

-경제적 불평등과 연대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날 아시아의 '호혜성'과 '연대경제(Solidarity Economy)'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아시아 경제 위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시장 실패의 역사적 패턴과 금융자산에 집중된 화폐 정책을 고찰할 것이다. 이는 노동자 임금 체불로 불평등을 키우고 포퓰리즘과 정치적 혼란을 보다 빠르게 만들어내는 원인이다. 또한 일본과 한국의 경제적 성과와 중국 부흥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1990년대 아시아에서 상호연대 활동에 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의 실패와 내재된 불평등을 자각했으며,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변혁의 수단으로 호혜성이 강조되었다.

III. 아시아에서 가속화되는 호혜성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아시아의 호혜성과 연대경제가 더욱 가속화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2007-2017년과 1927-37년은 유사한 부분이 있다. 또한 폴라니의 이론을 적용해보면 앞으로의 신자유주의 위기는 도산과 실업, 주식시장의 손실, 부동산 압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정부의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 능력이 심각하게 붕괴 될 것이며 통화 변동성은 심지어 무역 축소를 야기할만큼 신용을 떨어뜨릴 것이다.

호혜성은 아시아 문화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다. 현재 아시아는 다른 나라의 무력함이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세계적인 역량과 지역 집단주의에 다시 힘을 모으며 나아가고 있다.

세계 대공황과 유대관계

	영국	일본
시장 경제	금본위제 고수 반동 정책으로 경제 악화	금본위제 폐지 진보정책으로 경제 부양
재분배	임금 및 복지축소 노동조합 파업 불허 임차료 통제	평가절하 수출증가로 인한 고용창출 엔화 주식시장 상승
호혜	대안경제, 생존 협동에 의한 감당비용 구축 상호성의 입법화	지역과 정부의 상호공생 사회 공동체 결속 상호성의 입법화

세계대공황 전후 한국과 일본의 협동운동

	일본	한국
배경	식민지배	피식민지
호혜조직	講, 結	계, 두레, 품앗이
조직 결합도	마을, 家 家 중심으로 강함	상대적으로 느슨함
정부주도 협동조합	자유주의	관치주의
민간협동조합	산업화.경제위기 극복	독립.자립소비 운동
호혜성 약화	1932년 농촌진흥운동. 태평양전쟁 및 만주국 설립 등 총력전	

1931년 엔화의 금본위제 폐지 시, 일본 중앙은행은 영국의 임금억제 정책과 상반되는 양적완화 정책을 주도했다. 일본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렸고, 이는 일본정부의 지출증가로 이어졌다. 이 정책은 “일본을 세계대공황에서 구출하는 신의 한수였다.” (Ben Bernanke, 전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동아시아 경제위기와 사회 그리고 연대경제의 자각

	일본	아시아	한국
시장	아시아에서의 중압감		급격한 수출투자 자본 (1990 년)
경제	아시아의 원동력 상실 장기 디플레이션 재정적자 규제 GDP 제한 반동적 경기침체 정책		아시아 수출산업 생산 과잉 유동성위기(1997 년) 수입 30% 감소 (1998 년) 아시아 경기 침체 IMF 의 유사불경기 상태 부과 (금리 상승)
재분배	90 년대 1 인당 GDP 하락 엔화의 수입, 복지 축소 실질 부채 증가 1 인당 GDP 감소	파산.실업 제한된 사회적 안전장치	고금리 (IMF) 기업 제조를 20% 하락 IMF 의 통화 방어
호혜	협력의 증가, 생존 조합 부문 강화 GDP 감소에 의한 조합부채증가	수출 취약성 감소 시장 의존 시장실패	SSE 역할 인식 자립/자활 프로젝트 SSE 발달 정부의 SSE 참여

1997 년 IMF 는 아시아에 고금리를 부과했다. 이는 외국인 채권자의 자산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1998 년에 IMF 를 통해) 경제적, 재정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아시아 국가들의 결합을 파괴하려는 의도였을까? (Kari Polanyi Levitt)

거대 금융화 그리고 완화

	일본	한국	중국
시장	수출 성장 한계	수출 성장 한계	수출 역할 감소
경제	정부 재정적자의 확대 엔화 절하, 부채/GDP 상승 양적완화, 화폐 발행 그리고 지출	정부 재정적자의 확대 정부의 일자리 부양 정책 정부 및 일반 부채 증가	내수 증폭 일자리 전환 채권 금융 팽창 자본 통제 개시 유동성 시장 축소
재분배	특정 대상 복지 사업 위기대상에 대한 복지 연금 및 복지 혜택 축소	가계부채 위기대상에 대한 복지 (일자리) 정부 실소득 보조 증가	극심한 소득 불균형 일자리 정책 재정적 손실과 이익 새로운 경제에 부적합한 노동력 공급
호혜	조합관련 법규의 현대화 극심한 소득 침체 생존을 위한 조합의 노력 정부와 기업의 서비스 제한으로 조합의 새로운 서비스 확대	SSE 정책의 가속화 3 단계 정부차원 SSE 정책의 조정 SSE 의 급격한 증가 SSE 서울모델도시	상호 지원 허가 제한된 SSE 체계 소규모 SSE 허용 협동조합의 재건

“2007 년 금융위기는 시장경제의 불가피한 반복이며...국제정책의 자유화...무역과 재정에 의한 세계적인 디플레이션 압력이다. 1995 년에서 2005 년 까지 두 배 가량 성장한 GDP 는 중간층 가계소득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쳤고 OECD 국가에서는 산업인력을 감소 시켰다.” (Kari Polanyi Levitt)

주요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근거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 기본법	행정자치부 지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작연도	2007	2012	2010	2012
주참여자	취약계층	이해당사자	지역주민	저소득층
개수(16년말)	1,713 개	10,640 개	1,446 개	1,149 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특별토론회(2017.7.21) 자료집 26 면